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	
		배포일시	2021. 7. 2.(금) /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임종일, 사무관 김도한 • ☎ (044) 201-4602	
보도일시		2021년 7월 5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4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인재 육성, 산·학·연·관이 함께 됩니다.

- 미래철도 연구개발(R&D) 선도 인재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-

□ 앞으로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미래 철도기술 연구에 철도업계가 마중물을 마련하고, 국가가 이를 뒷받침하여 철도분야 창의인재육성을 지원한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와 한국철도공사(사장 손병석), 국가철도공단(이사장 김한영), 한국철도기술연구원(원장 한석윤), 현대로템(사장 이용배), 한국대학교육협의회(회장 김인철)는 미래 철도를 이끌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한 산·학·연·관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* (일시/장소) 2021. 7. 2. (금) 16:30 ~ /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

□ 전 세계 철도시장은 232조원('18년 기준)에 달하는 거대시장으로,

○ 세계에서 4번째로 고속철도 차량 제작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개발(R&D) 인재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다.



* R&D 인력 매우부족 17.6%, 부족 51%

(국토교통분야 전문 연구인력 양성 중장기 전략, 21.5, KAIA)

- 특히, 국내 대학의 철도인력 양성 방향은 운영인력 뿐만 아니라 미래 철도산업 분야에서 보다 다양한 신진 연구자들이 철도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.

* 철도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갖춘 대학(원)은 총 10개교

- 이에, 국토교통부는 대학에서 철도를 연구한 인재들이 철도업계에서 후속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일궈내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.

- 한편, 이번 협약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참여하여,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.

-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철도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미래 철도의 핵심기술 발굴
- 대학에서 철도기술 R&D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철도기술 R&D 지원방안의 시행
- 프로젝트 이후에 후속연구와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 등이다.

- 이번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 관계기관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, 하반기 중에는 철도공사, 철도공단 등 철도업계가 자금을 모으고 (Funding), 핵심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파일럿(Pilot) 연구를 수행할 대학을 선정(3년간 24억원)한 이후,

- 이를 지속가능한 과제로 연결하기 위해 국비지원 방안을 마련해, 대학에 산학연이 융합하는 연구센터(Research-Center)를 선정할 계획이다.
- 이 연구센터는 철도업계의 수요를 큰 틀에서 제시하고, 대학이 자유롭게 세부연구주제를 제안하는 미들업(Middle-Up) 방식을 채택하여 도전적이고, 혁신적인 연구를 제안하는 팀에 설치된다.
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철도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젊은 연구자들이 대학에서 철도를 연구하도록 보다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 안전정책과 김도한 사무관(☎ 044-201-460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